

코스피 댔친 정치불안·무역전쟁... 개미·外人 '국장' 떠난다

(국내 증시)

외국인, 8조8067억 팔아치워
개인도 해외 주식비중 확대 나서
국내 증시 흔들리며 투자심리 냉각
가상자산·달러도 변동성 커져

개인 투자자 김모 씨(44)는 해외 주식을 더 매입하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여유 자금을 미국 주식에 70%, 국내에 30%씩 투자해 왔는데 최근 코스피가 탄핵 정국 장기화, 미국발(發) 관세 전쟁 등에 흔들리자 해외 주식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투자 지역은 중국과 인도시장을 생각하고 있다. 그는 "국장(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날 생각이다"라고 했다.

동·서학 개미(국내의 개인 투자자)들이 '트럼프 패닉(공포)'에 잠입을 못 이루고 있다. 트럼프가 확전의 불씨를 쏘아 올린 글로벌 관세 전쟁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정책의 수혜 자산에 투자하는 것)'가 '트럼프 버블(거품)'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3일 아시아 증시는 1~2% 하락했다. 가상자산도 곤두박질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물가 상승 압력을 계속 키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경고음까지 커지는 상황으로 한국도 그 그늘에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할 때다"라고 조언한다.

◆"관세, 마진 압박과 투자지출 부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관세전쟁

날짜	관세 부과 내용
1월 20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26일	콜롬비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및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3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30일 유예 발표
4일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 발효
10일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언급
14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언급
25일	외국산 구리 수입에 대한 조사 지시
3월 1일	외국산 목재 수입에 대한 조사 지시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효 및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발효
5일	캐나다와 멕시코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30일 유예 발표
6일	캐나다와 멕시코 USMCA 품목에 대한 25% 관세 유예 발표
12일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효
18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더티 15' 국가 언급
24일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국가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
26일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발표(4월 3일 발효)



자료/대신증권

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감소다. 전 세계 경제가 '트럼프쇼션(트럼프와 침체를 뜻하는 리세션을 합친 말)'에 빠져 들고 있어서다. 세계은행(WB)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와 같은 2.7%로 유지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무역전쟁을 촉발할 경우 전망치가 최대 0.3%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기업들의 영업 성적이 좋을 리 없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193개사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270조 9495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286조9896억원)보다 5.59% 감소한 것이다. 박윤철 iM증권 연구원은 "관세는 기본적으로 비용을 상승시키는 정책으

로 상호관세 부과로 기업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기업들의 향후 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잿빛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0.4%포인트나 낮아졌다. 잠재 성장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예고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었다. 영국 소재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제로성장'(0.9%)을 전망하고 있다. S&P 글로벌은 '2분기 아시아 태평양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자동차 관세 영향과 대미(對美) 수출이 경제 규모에 비해 크다는 점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채권 등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제로(0%)성장 경고에 외국인투자자들은 올해 8조806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여기에 원화 가치 약세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연초 146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해 3일 오후 3시 30분 1467원에 전장을 마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가 요동칠 것으로 전망한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제가 반등할 만한 요인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 1기에도 대중 관세가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켰던 만큼 상호관세 이후 글로벌 경기 흐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전쟁이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다 추가폭락,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던 1930년대 대공황 직전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변동성 큰 증시", 분산투자하라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현상도 두드러진다.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는 치솟고 있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6월물은 트로이 온스(1ozt=31.10g)당 전날보다 0.6% 상승한 3166.20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금 현물은 이날 장중 전장보다 0.

4% 오른 3123.05달러를 가리켰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 달러화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달러 가치는 주요 10개국(G10)의 모든 통화 대비 하락했다. 이 기간 일본 엔화와 유로화 가치는 각각 달러 대비 4.9%, 4.6% 상승했고 스웨덴 크로나 가치는 달러 대비 10.7%나 올랐다. 금융서비스업체 페퍼스톤의 마이클 브라운 선임전략가는 "외환시장에서 안정성의 보루이자 최우선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달러화가 이제 완전히 반대 위치에 있다"면서 달러 대체 투자처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개미들은 어디에 자산을 굴려야 할지 고민이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경기 방어주 및 금, 채권 등에 대한 분산으로 리스크 헤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1분기 실적 호전주에도 주목한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정책 관련주들이 등락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를 필두로 기업 실적 영향력도 재부각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도 "중장기적으로 경기,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실적 우상향하는 업종이나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공지능(AI), 비만치료제 등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군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헤게모니를 보유한 우량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희비 엇갈린 투자시장... 금값은 치솟고, 가상자산은 줄줄이 '급락'

상호관세 발표 직후 비트코인 5% ↓
이더리움 2.1%·리플 1.8% 등 하락
금값, 3200달러 근접하며 강세보여

트럼프 발(發) 관세 전쟁 여파가 가상 자산 시장을 강타했다. 시장의 예측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정책이 시행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트럼프의 발표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3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따르면 가상자산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2시께 1BTC

당 약 8만3600달러(1억23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4시간 전보다 약 1.2% 하락한 수준이다. 앞서 '상호관세' 공표를 앞두고 연일 약세를 지속했던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공개된 직후 3시간 만에 5%나 급락한 뒤 하락을 일부 되돌렸다.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도 하락세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전일보다 2.1% 하락, 시총 3위인 리플(XRP)도 1.8% 하락해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전체로는 24시간 전보다 약 1.2% 하락해 거래 중이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트럼프가 강도 높은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가격을 빠르게 끌어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대(對)미 무역 흑자가 많은 25개의 주요 무역국에는 개별적인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10%의 기본 관세는 오는 5일, 국가별 개별 관세는 9일 시행된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대만 32% ▲인도 26%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등이다. 중국에는 기존 20% 관세에 새롭게 부과되는 34%포인트(p)를 더해 54%의 막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관세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발(發) 무역 전쟁의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관세가 부여됐던 캐나다·중국 등은 무

역 보복에 나섰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구성국들도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불확실성 확산으로 가상자산 가격은 급락했지만,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강세를 지속 중이다.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일주일 만에 100달러 넘게 상승했던 금 가격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공표 이후에도 10달러 이상 급등해 온스당 3200달러를 목전에 뒀다. 금값이 지난 3월 14일 사상 최초로 3000달러를 넘긴 지 3주 만이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만 사상 최고가를 23번 경신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보호무역주의 시대... 보험업계, '글로벌 리스크' 직면

자유무역 퇴조에 통상 리스크 확대
정치·경제 단절 가속 해외전략 흔들
보험사, 규제·지정학 변수 전략 재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로 세계 경제가 신(新)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재편되면서 국제적 영업망을 갖춘 보험사 역시 비상등이 켜졌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 자유무역에서 보

호무역주의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나 보조금, 비관세장벽 등을 통해 외국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무역정책이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각국도 안보와 경제 주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조를 전환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지정학적 경제 단절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경제협력을 통해 달성했던 성장과 물가 안정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미시적으로는 보험산업도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 제약이 커지면 보험사의 리스크 분산과 해외 진출이 막히고 기업들의 정치적 위험이 가중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단절과 보험산업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국가 간 투자 제한이 늘고 각국별 보험

규제가 달라지면서 보험사의 글로벌 확장에 장애물이 커지고 있다.

지정학적 경제 단절에 따라 사업 운영 리스크 분산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불안한 투자 환경으로 정치적 위험 보험수요까지 높아져 보험사도 새로운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다국적기업이나 해외거래가 많은 국내 보험사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를 둘러싼 각종 규제 이슈가 연쇄적으로 겹치면서 글로벌 리스크 관리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수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되면 글로벌 경제부터

영향을 받고 이는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보험산업에 파급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면 영향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기업 혹은 해외와 무역을 하고 있는 국내 보험사들 같은 경우 정치적 위험과 국제적인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보험사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역량이 어느 때보다 더 주목받고 있다.

/김주형 기자 gh471@